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에 직장을 구하려고 선을 대고 있었는데 마침 시인 민영 선생의 도움으로 마포의 금성출판사 편집부 일어 번역 파트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민영 선생한테 암전히 지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보고 그만 이를 시정하는데 앞장선 것이다. 조합 결성 움직임으로 발전하는 바람에 묘한 상황에 빠져 버렸다.

어느날 출판사 백모 전무가 나를 자기 방으로 불렀다. 모두 세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소위 '직장 정화위원회'가 열린 것이다.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도망자 신세라 받아들이 수밖엔 없어 동료들에게 조용히 작별인사를 했는데 그들이 고맙다고 위로 금까지 모아주는 것이다. 알고 보니 나를 자르는 대신 직장의 임금체계를 합리화시키면서 다소 임금까지 인상시켜 주었으니 고맙다는 것이었다. 수배생활 동안 내 아내와 막 태어난 큰 딸은 당시 특수수사대로부터 밤낮없는 수색과 위협으로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유신의 종말 또한 거친 숨결을 토해다. YH 노동자 신민당사 점거, 부마항쟁 그리고 갑작스런 박정희의 죽음, 그리고 짧은 '서울의 봄'을 거친 뒤 찾아온 전두환의 반동 시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격동의 70년대를 딛고 80년대의 대중적 성장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긴조 시대는 80년대 이후 우리사회의 민중운동, 민족민주운동의 밑거름이 된 시기이다.

긴조 시대는 사회과학 출판운동을 고리로 80년대 민족민주운동과 민중투쟁 등 운동의 과학화, 대중화의 이념적 토대로 역할하였다. 긴조 시대의 단련된 활동가들은 80년대 민중운동의 참모부로서 특히 '민중 속으로' 들어가 각계각층 대중운동의 발전을 이끈 선도적 역할을 하였다.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청년학생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으로 산개하여 그들은 각 부문대중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동시에 긴조 시대 활동가 상호간의 동지적 관계와 인간적 교류는 지역과 부문을 넘어 전국적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하였다. 그들에 의해 80년대 민족민주운동은 연합운동과 구심형성에 낭비를 줄이고 정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긴급조치 시대는 우리 사회의 반외세 반독재 투쟁의 역사적 시기이자 내 인생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던 시기였다. 나는 그 시기를 딛고 80년대를 뛰었고 90년 노동 현장 속에서 살다 오늘에 이르렀다. 지금 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 · 평화 · 통일 시대를 위하여



장영달_ 국민대 행정학과 68학번. 1974 민청학련사건으로 7년 선고, 1983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창립초대부의장, 2003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 조직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전주 · 완산갑,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의원)(현)

1974년 봄, 나로선 3년 동안의 군대생활을 마치고 부지런히 학업에 열중하여 졸업하면 취직을 반드시 해야 할 입장이었다. 시골에서 평생농부로 살아 가시는 부모님과 생계 꾸리기에 급급한 8남매를 보아서도 나는 소박하게 나의 생계, 장래만을 위해서 고민하고 충실해야 했다. 돌이켜보면 실존적 현실을 무시한 당시의 나의 삶을 무어라 설명해야 옳을 것인지!

기독교학생운동에 뛰어들며

서울 남산의 시민집회에서 박정희 유신정권을 비판하고 나선유인물 살포사건이 발생했고 박형규 목사님은 구속되었다. 아마도 유신독재에 집단으로 항거하기 시작한 최초의 일이 아닌가 싶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국내 기독교학생운동권은 전국대학에 펼쳐진 KSCF(한국기독교학생회 총연맹)조직을 총체적으로 연결하며, 침묵속의 유신체제 돌파를 위한 투쟁전선을 전개하였다.

나는 국민대 기독교학생회장겸 KSCF 기획부장으로 최민화, 황인성, 서창석, 김경남, 신대균, 이원희, 김형기, 김혜숙 등과 함께 이곳저곳 숨죽이며 유신철폐운동을 준비하고 다녔다.

당시 조직적으로 박정희 유신철폐운동에 대한 저항운동을 벌이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나마 기독교를 배경으로 뭉칠 수 있던 게 KSCF였다. 단일 조직으로는 단연 전국 최대학생조직이어서 처음에는 “민청학련”이 아니라 “KSCF” 사건으로 규정하려다가 기독교계를 자극한다 하여 민청학련으로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 이직형, 안재웅, 정상복 선생 등이 우리를 지도하였다. 일반학생이건 종교단체이건 모임 곳이라고는 종로5가 기독교회관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1974년 1월, 무단히도 차갑던 동토의 계절, 장준하, 백기완 선생님이 구속되고 이해학, 박운수 목사 등이 뒤를 이어 감옥으로 가고 긴급조치가 선포되어 반대자들은 모조리 서대문형무소로 잡혀들어 가던 때 기독교학생회들도 남김없이 체포되어 중앙정보부 수사실과 서빙고에 위치한 국군보안대 수사실에 끌려갔다. 잔인한 1974년 봄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감옥이 바로 천국!

열흘 정도의 서빙고 보안대 수사실의 나의 경험과 남영동 대공본실에서의 고문 경험은 지금도 나의 뺨속에 사무쳐 있다. 지옥 같은 시간들을 용케 견디고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검은 짙차에 실려 서대문형무소에 들어설 때 나는 얼마나 안도하며 해방감을 느꼈는지. 밤낮을 구분할 수 없는 지하실에 4.5구경 리벌버 권총을 세워둔 현병 두 명은 차디찬 무쇠총구를 목덜미 양견 살에 바짝 밀착 조준한 채 차렷 자세로 서있고, 백발이 성성한 고등수사전문가는 눈에 핏발을 세운 채 시시때때로 “죽기 싫으면 바로 말하라”고 협박하던 시간들. 그러다 사람소리 들리는 서대문에 들어서니 그 감개무량함(?)이 얼마나 컸겠는가!

인혁당 사건은 완전 조작이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나는 이재형, 임구호 등 인혁당 관련자들을 처음 만날 수 있었다. “인혁당 사건”은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조작된 박정희정권 최대의 합법을 가장한 살인사건이다. 그 고문의 정도가 어쨌는지를 나는 이재형 선생의 모습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도록 가족은커녕 변호사 접견도 일체 허용되지 않던 그러한 조작사건이다.

“재판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가족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으면 원이 없겠는데 자신이 없다”

고 가늘게 겨우 말해주던 이재형 선생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서대문형무소 9사 상층에서 나는 1방, 이 선생님은 38방에 살며 겨우 건넌 대화의 일단이다.

나의 옥중수난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1심에서 10년, 2심에서 7년 선고를 받았다. 나의 형량은 그 당시로서는 그리 장기형이 아니었다. 유인태, 이철, 이강철, 나병식 등에게 사형, 20년 등이 애 이름처럼 선고되던 시절이었으니까.

74년 4월 초 구속되었다가 다음해 2월 형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되었을 때 나는 서울, 전주, 부산 등지를 다니며 겁도 없이 인혁당 사건을 폭로하고 다녔다. “인혁당은 조작사건이며 일반재판정에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요지의 폭로였다. 그리고 다시 재구속. 핑계는 배기선, 권운상 등이 주도한 국민대 데모사건 배후조종이었지만 사실은 인혁당 사건의 폭로가 이유였다. 다시 1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76년 11월 4일이 만기출소일이었는데 중앙정보부는 나에게 4차례나 반성문, 각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를 모두 거절했고 급기야 형집행정지 상태였던 6년 2개월 남은 민청학련 잔형이 재집행되어 목포교도소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유영표, 유상덕 등지 등 세 사람이 굴비 엮듯 하여 도착한 목포역은 진눈깨비가 날렸고 스피커에서는 “목포의 눈물”이 을씨년스럽게 울렸다. 만 4년을 나는 목포교도소 독방에서 보내야 했다. 목포에서 10.26을 맞았고, 12.12를 맞았으며, 그후 5.18 광주항쟁을 맞았다. 자식을 애태워 기다리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아버님 소식도 모른 채 홀로 한없는 세월을 보내야 했던 곳이 바로 전남 목포시 산정동 소재 목포교도소다.

1979년 박정희가 살해된 뒤 목포교도소에서는 “이제 출소준비나 하시라”며, 교도관들도 모처럼 각별한 친절을 베풀었고 그렇게 짧은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전두환시대가 시작되면서 다시 옥중의 나에겐 새로운 시련이 닥치기 시작하였다. 5.18 직후의 일이다. “1008번은 중앙에서 특별취급을 하란다.” 전향서를 쓰라는 것이다. “나는 국보법위반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긴급조치위반으로 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서를 거부하여 이토록 탄압을 받아왔는데 전향서라니 당치 않은 얘기”라며 단호히 거부하였다. 며칠 뒤 대전교도소로의 이송명령이 떨어지고 “박정희 죽고 전두환 되니 파출소 지나 경찰서 나타난 꼴”이라며 교도관들도 안

계명대 홍정회와 긴조9호

타카워 혀를 찾지만 나는 또다시 몸이 뽕뽕 묶여 일제 때부터 소문난 대전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그래도 오히려 기뻐던 것은 같은 신세로 이 교도소 저 감방에 떠돌던 이강철 현 청와대시 민사회수석과 임구호 등 인혁당 선배들, 정화영 동지와 함께 살게 된 것이다. 목포에서 유상덕, 유영표가 몇 달 만에 나가버리고, 문동환 목사님, 신동수, 설훈 동지 등이 잠시 다녀갈 뿐 혼자 보내는 외로운 감옥살이가 몹시 힘들기만 하였다. 그런데 대전에 오니 인혁당 멤버뿐만 아니라 임채정, 이부영님과 내가 사랑하는 권운상 국민대 후배, 조금 있으니 동교동 김홍일, 한화갑, 김옥두님을 비롯 김대중 선생님의 동생까지, 대한민국 정치범의 총집합소가 되어 영켜살게 되니 오히려 행복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8년여 투옥살이로 심신이 힘들어진 이강철(당시35세), 정화영, 임구호(당시34세) 동지와는 지금도 변함없는 우정을 누리고 있다.

박정희 영구집권 획책에 따른 유신철폐 군사독재, 5.18광주학살자인 전두환 군사독재,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반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확실하게 과거사를 청산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워, 민주·평화통일세상을 만드는 것이 민청학련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민주로 로 민 의 새 로

민청학련 사건은 반독재민주화와 평화적 민족통일의 염원을 담고 일어난 애국청년투쟁활동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웬지 분열되고 분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제 우리들의 힘과 뜻과 의지를 다시 모을 때가 되었다.

대부분의 민청세대는 50대를 넘어 서서히 60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 그간의 경험과 투쟁력과 지혜들을 공유하되 자신을 비우는 마음으로 후배들을 지원하고 이해하고 격려해야 할 때이다. 주변 강대국들의 각양각색의 도전들, 아직도 계속되는 분단의 아픔, 반민주성에 따른 사회 분열을, 우리들 민청세대가 아우르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장·청 민주세력이 총단결하는 시대, 꺾테기는 가고 민족·민주·평화통일 세력이 역사의 중심에 서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통성의 시대를 위하여, 조국의 제단 위에 우리 모두를 던지자! 민청학련이 오늘의 역사에 기여할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더냐!



백현국_ 계명대 영어영문학과 68학번. 진량고등학교 영어 교사, 진성교역 대표, 웅지학원 원장, 고신중학교 영어교사(현)

1976년 6월 나는 평소와 같이 첫 임신을 한 아내의 배움을 받으며 도시락 가방을 들고 대문을 나와 길모퉁이를 돌아섰다. 지금은 아파트로 변해버린 파밭을 지나는 순간 건장한 세 명의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검은 짚차에 태워졌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앞산 중앙정보부 대구 분실이었다. 그들이 요구하는 유서를 작성하고 취조실로 들어 설 때까지 그들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나는 이미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 취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다. 이미 69년도에 삼선개헌 반대시위를 주도하다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받고 구속된 경험이 있으므로 취조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했다. 발가벗긴 채 형사가 던져준 흰 종이에 그 순간부터 기억나는 순간까지 과거로 돌아가 나의 기록을 적으라는 요구를 듣는 순간 '홍정회 동지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고등학교 시절 학생회장으로 한일회담 무효시위를 주도하다가 처벌 받았던 적이 있으며 68년 계명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삼선개헌 반대시위를 주도하여 구속되었다. 당시 대구에는 경북대학교와 계명대학이 학생운동을 주도했으며 영남대학교는 신설(대구대와 청구대 합병)된 대학으로 학생운동의 토대가 미약했다. 그 당시 계명대학은 최이수, 임종호, 김홍주,